

# 양·한방·대체요법 진료·체험하세요

## 장흥 천관산 일대에서 10월 24~30일 통합의학박람회

“양방과 한방, 보완대체요법 등 사람을 살리는 의학의 모든 것을 ‘2012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서 확인하세요.”

전남도는 3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로 3회째인 맞는 이번 박람회는 ‘자연과 인간을 잇는 건강 통합의학’을 주제로 오는 10월 24일부터 30

일까지 7일간, 장흥 천관산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덕철(연세대 의과대 교수) 조직위원장은 “올해는 통합의학적 진료관 구성에 따라 참여자가 다양한 진료, 상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넓은 행사장과 쾌적한 환경, 편리한 동선으로 박람회 참석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안양샘병원 등 184개의 전문 의료기관 및 협회단체 등이

참여해 양방, 한방, 보완대체요법을 각 진료관내에서 치료·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의학정보관 및 진료체험관을 통해 통합의학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전남도는 박람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홍보대사 인요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와 어르신 효(孝) 건강검진의 날

운영, 외국인 관람 여행상품 출시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 정순남 경제부지사는 “통합의학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시작된 국내 유일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통합의료센터’ 건립사업비 확보 등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올해 박람회를 기점으로 전남도가 국제적 통합의료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다문화가족 우리문화 탐방

담양군에 정착한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최근 대나무박물관을 찾아 해설사로 부터 담양 역사와 누정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담양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다문화가족 동행 우리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 한·중·일 조정전문가 400명 다음달 12일 순천시 만나다

**국제 조정전문가 회의**

한·중·일 조정전문가 400여명 순천에 온다.

순천시와 (사)한국조정학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3회 한·중·일 국제 조정전문가 회의’가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생태관광의 패러다임 및 녹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조종훈 순천시장을 비롯한 한국 조정학회·중국 풍경원립 학회·일본 조원학회 대표와 조정관련 학자, 공무원, 전공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3국의 생

태관광 마을 만들기 비교 분석 등 총 9개에 달하는 주제발표 후 마지막 날은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선암사, 조정유적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홍보와 동북아의 조정관련 학문적, 기술적 교류를 위한 자리로 순천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최원병 농협회장 태풍 피해 과수농가 방문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30일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은 장성지역을 방문해 피해 과수농가를 위로하고 전사적인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최 회장은 장성군 삼계면과 삼서면 사과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찾아 “계통관장 특관행사를 통한 사과 팔아주기 운동, 가공용 사과 매입 자금 지원, 피해복구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피해

복구 지원책이 잘 수행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1개 시·군 지자체 등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일손돕기와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기기자 song@kwangju.co.kr

### 민족 음악가 채동선 음악회 성료

**보성 별교서**

보성 별교출신 민족 음악가 채동선(1901~1953) 선생을 기리는 음악회가 지난 29일 보성군 별교읍 채동선 음악당에서 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음악회는 별교어머니 합창단과 용정중학교 오케스트라, 가수 안치환,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했다.

음악회를 주관한 박점수 별교청년회소 회장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별교가 낳은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선생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은 선생의 숭고한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리고 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 일환으로 지난 2007년 채동선 선생 음악당을 개관했다. 음악당은 친필 악보 등 선생의 유품 전시관과 344석 규모의 객석 등 공연시설을 갖췄다.

한편 채동선 선생은 1901년 별교읍 세망동에서 태어난 한국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아울러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한민족의 정신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내 민족혼을 불사른 민족 음악가로서 ‘망향’, ‘꽃피는 봄이 오면’, ‘고향’ 등의 명곡을 남겼다.

/동부취재본부=김은성기자 kim0686@

### 장흥, 태풍피해 820여건 400억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태풍 ‘볼라벤’ 태풍으로 수백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장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요청하는 등 피해복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태풍피해를 살펴보면 ▲주택·건물·창고분야가 145동에 92억원 ▲축사(150동) 39억원 ▲수산 및 해양분야 100억원 ▲비닐하우스(140동) 14억원 ▲농작물 및 과수분야 30억원 ▲도로 시설물 20억원 등 820여건에 400여억원에 달한다.

이 같이 장흥지역 피해규모가 큰 원인은 회오리성 강풍과 태풍 오른쪽 방향에 위치해 강진·완도·해남과 더불어 건물과 각종 시설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송전탑 파손과 전선주 전복이 심해 장흥지역 대다수 지역이 정전상태를 빚었으며 면단위는 아직도 전기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수산 양식장(수조식 양식)과 한우 방목장 등 생물에 관련된 분야가 우선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측에 전기 공급 협조를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물,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www.chilman.co.kr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